

한글 킹제임스(KJV) 성경 번역의 문제점: 언어/문법/문화 충돌을 중심으로

박 노 철
(세종대)

1. 서론

성경을 번역하는 원칙에는 원문의 형식을 번역문에도 그대로 반영시키는 형식일치(literal translation)번역과 원문이 지닌 형식보다는 원문의 뜻을 수용언어의 독자나 청자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하는 내용일치(idiomatic translation)번역이 있다).

1950년대부터 성경 번역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나이다와 태버(Eugene Nida and Charles Taber 1969: 13-14)는 “성경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꾸며

1) 나이다(Eugene A. Nida)는 원문의 형식을 번역문에도 그대로 재생시키는 축자적 번역을 형식일치 번역(Formal correspondence translating), 혹은 형식등가 번역(Formal equivalence translating)이라 했다. 또한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일치 번역을 내용등가성 번역(Dynamic equivalence translating)이라고 표현한다(1964: 165-75).

내지 말고 올바른 해석 원칙에 따라 원문의 의미를 가능한 한 정확하고 충실하게 번역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의 저서에 나타난 주장을 살펴보면 형식일치 보다는 내용일치에 역점을 두어 번역하는 것이 성경의 정보적 내용뿐만 아니라 원문의 느낌과 의향까지도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번역을 할 때 어떤 단어가 텍스트 상황에서 다른 단어와 나란히 배열되어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것은 번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그 어떤 단어나 구의 배합이 그 텍스트 상황에서 아주 잘 어울리는 번역문이 있는 반면에 어떤 번역은 단어의 배합이 잘 못되어 텍스트의 의미를 벗어나 독자나 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어나 구의 배열을 번역학적인 용어로 연어(collocation)라고 한다. 사실 어떤 언어든지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언제나 다른 단어와 배합되어 쓰인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언어에 나타난 단어가 아무의미 없이 배열되는 경우는 없으며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배합되는 방식에 어떤 타당성이 있게 마련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어의 배합이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단어의 배합이 잘 못되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와 아울러 문화적 내지는 문법적 충돌이 일어난 경우를 살펴본다. 사실 어떤 언어든지 문맥만 맞으면 이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의미를 왜곡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영어 문장: I can give a broad summary of something(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요점을 제공할 수 있다)에 나타난 a broad summary를 a wide summary로 쓰게 되면 영미 문화권에서는 어색한 표현이 되고 만다. 성경에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Jesus had trouble or Jesus suffered trouble)를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 ‘고통을 보았다’(He sees trouble) 내지는 ‘고통을 마셨다’(He drinks trouble)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의미는 통하지만 어색한 표현으로 다른 텍스트와 결합했을 때 원문의 깊은 의미와는 다른 해석을 내릴 수도 있다.

베이커(Mona Baker 1998: 49)는 “연어 유형은 주변 세계의 내적인 질서를 반영하기보다는 어느 특정 언어 공동체가 선호하는 언어적 배열과 표현 유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예로 라슨(Larson 1988: 158)은 다음과 같은 영어 예문으로 특정 언어 공동체가 선호하는 언어적 배열과 표현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 1) The king abdicated(그 왕이 퇴임하셨다).
- 2) The principal resigned(그 교장 선생님이 사임했다).

위의 문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은 그 사회에 위치한 신분에 따라 뒤에 나오는 동사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언어 유형을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말로 된 성경 번역 가운데 1611년판 킹제임스(KJV) 흠정역본을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번역 출판한 『한영대역본』과 ‘말씀보존학회’에서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 분석하여 언어적 차원의 등가와 아울러서 문화적 차원, 문법적 차원의 등가를 살펴 보려고 한다²⁾. 또한 참고가 될 만한 번역본으로 *Good News Bible*(GNB)과 표준 새번역 개정판(표준)을 참고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로 원천언어와 목표언어가 언어 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번역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보며 비교 분석한 번역본을 모델로 언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언어 충돌

언어 충돌이란 텍스트안에 있는 의미요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은 문법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어휘적 선택으로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비크만과 켈로우(Beekman and Callow 1988: 162)의 설명에 따르면, ‘the silent paint’란 표현에서 고요한의 의미인 ‘silent’와 걸치장의 의미인 ‘paint’를 배합했을 때 언어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paint’란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시끄러움을 뜻할 수 있어서 비유적으로나 문자적으로 고유함의 의미인 ‘silent’와 배열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조우스(Joos)가 설명한 문장, ‘I never have heard a green horse smoke a dozen oranges’을 예

2) 본문에서 번역본을 비교할 때 *King James Version*은 (KJV)로, ‘그리스도 예수안에’라는 협회에서 출판한 번역본은 (그예)로 표기하고, 말씀보존학회의 번역본은 (말보)로 표기하겠다. 아울러 *Good News Bible*은 (GNB)로 표준새번역 개정판은 (표준)으로 하겠다.

로 들면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서로 상응하지 않는 의미 요소들로 배열되어 네 가지 언어 충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162).

상황이 비정상적인 경우, 즉 문맥에 나타나는 기적이나 환상 등, 기적의 세계를 표현할 경우에도 언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예를 들어 물이란 단어가 전하는 의미 요소 중의 하나가 고체가 아니라 액체라는 점인데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고 물위를 걷는 것은 그 자체가 언어충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그것이 기적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문장에 나타나는 ‘green horse’(초록 말), ‘heard smoke’(연기의 소리를 듣다), ‘horse smoke’(말이 연기를 피우다), ‘smoking oranges’(연기 나는 오렌지)등에서처럼 문맥만 맞으면 영어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가능할 수는 있는 것은 기적이나 환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베이커는 어떤 단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경향은 그 단어의 명제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령 ‘수표’라는 단어는 ‘달, 버터, 운동장, 수리하다’라는 단어보다는 ‘은행, 지불하다, 돈, 이서하다’ 등의 단어와 더 잘 배열되는 경향이 있다”(Baker 46). 다시 말해 언어란 개개의 어휘 항목이 문맥 속에서 서로 결합하는 연쇄 관계(chain relation)라 할 수 있으며 이 연쇄 관계가 바로 언어가 일어나는 언어 환경이 된다. 연쇄 관계인 언어배열이 잘 안될 때를 언어충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국어 킹제임스 번역본’에 나타난 언어충돌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에 나타난 언어 충돌

다음에 나오는 글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본(2001: vi)에 실린 것인데, 이 글의 필자는 킹제임스 역본이 완벽에 가까운 것처럼 말하고 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궁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궁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함염용(2003: 23)에 의하면 “*King James Bible*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와 표현들 중에는, 고풍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영어성경에서보다 의미가 적절하고 표현이 뛰어난 단어 또는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이와 반대로 부적당한 고어 또는 고풍의 표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말씀보존학회’에서 1994년에 *King James Bible*을 한글로 번역하였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체에서 2001년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제 그 번역본들을 비교하며 문법적 충돌과 문화적 충돌 그리고 언어 충돌이 일어난 곳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2.1.1 문화적 충돌의 예

문법적 충돌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은 문화적 충돌이다. 문화적 충돌은 비록 문법적으로 또는 어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번역된 텍스트가 독자나 청자에게 익숙한 문화적인 관점과는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다. 문화적 충돌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부분이 어휘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근희(2005: 254)는 “문화관련 어휘란 ‘원천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역사·사회·경제·정치·언어관습 등을 둘러싼 고유하거나 특정 문화에서 비롯되는 어휘이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문화관련 어휘는 원천문화의 배경지식이 없는 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종류의 문화적 배경의 충돌현상은 독자나 청자가 어떤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텍스트가 전하려는 의미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문화관련 어휘와 관련하여 관용어구 내지는 비유적인 표현도 문화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각 언어에 따라서 판이한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비크만과 켈로우(1988: 162)에 따르면 어떤 문화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

랑하지 않고 별주기만 한다고 믿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그 예 : 165)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내용에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반웰(Barnwell 1980: 78-82)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타나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어휘를 번역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1) 낯선 어휘는 설명조로 풀어서 번역한다.
- 2) 원천 언어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3) 수용언어 독자에 익숙한 어휘로 대치시킨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구절을 살펴보면 문화적인 차이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원천 언어의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과 수용언어 독자에 익숙한 어휘로 대치시킨 *Good News Bible*과 『표준 새번역본』을 살펴보면 문화적인 차이가 가져다주는 양상을 살펴본다.

Mark 2:19

(KJV) And Jesus said unto them, Can the children of the bridechamber fast,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as long as they have the bridegroom with them, they cannot fast.

(그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방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말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GNB) Jesus answered, "Do you expect the guests at a wedding party to go without food? Of course not! As long as the bridegroom is with them,

they will not do that.

(표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그예)와 (말보)에서는 (KJV)의 “children of the bridechamber” 관용구를 직역한 반면에 *Good News Bible*(GNB)과 (표준)에서는 “the guests at a wedding party”(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로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금 문화적 차이로 나타나는 충돌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처럼 문화와 관련된 관용어의 번역방법에는 직역으로 번역하는 방법과 수용언어권의 관용구로 번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³⁾.

비크만과 켈로우(1988: 161)는 “모든 문화적 충돌을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언어와 원천언어 사이에 있는 문화적인 차이를 굳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번역에서는 직역으로 번역하고 난외주를 달아주는 방법도 많이 쓰인다.

다음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나오는 “heap coals of fire on his head”을 각각의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알아보겠다.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에서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임이라”라고 문자적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헬라어 원본에서 직접 번역했다는 표준 새번역 번역본도 “숯불을 쌓는 셈”이라고 번역했다.

Rome 12:20

Therefore if thine enemy hunger, feed him; if he thirst, give him drink:
for in so doing thou shalt heap coals of fire on his head.

(그예)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지니

3) 이근희(2005: 273)는 관용어의 번역 방법을 5가지로 요약 설명하고 있다(참조).

이는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임이라.

(말보) ...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GNB) Instead, as the scripture says: "If your enemies are hungry, feed them; if they are thirsty, give them a drink; for by doing this you will make them burn with shame."

(표준)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에서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임이라”라고 문자적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헬라이어 원본에서 직접 번역했다는 「표준 새번역 번역본」도 ‘숯불을 쌓는 셈’이라고 번역했다. 반면에 「GNB」에서는 “burn with shame”로 번역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임이라”의 의미를 『NIV 한영해설 성경(한글 개역성경)』은 난외주(1997: 257)를 달아서 설명하고 있다.⁴⁾

비크만과 켈로우(1988: 162)는 독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문화적인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텍스트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의 의미는 번역자는 독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관점과 충돌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언어와 원천언어 사이에 있는 문화적인 차이를 굳이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문화적 관점은 구체적으로나 보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1.2 문법적 충돌의 예

베이커(1988: 82)는 언어의 어휘구조, 단어, 표현, 언어 유형 등은 화자에게 경험을 분석하고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즉 필요할 때

4) NIV 한영해설 성경(1997: 257): “그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을 느껴 회개하도록 한다.”

는 경험을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당 언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어휘 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휘 요소가 경험의 분석과 전달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경험을 전달하는 규칙적인 분류 방식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문화적인 체계와는 구별되는 문법 체계이다.

번역에 있어서 어휘적 선택과 문법적 선택간의 중요한 차이점은 어휘적 선택은 주로 선택의 자유가 있는 반면에 문법적 선택은 거의 강제적이라는 점이다(Baker 1988: 84). 이러한 차원에서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일단 어휘적인 선택보다는 문법적으로 번역을 잘 못하여 메시지의 정보 내용이 달라지는 결과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Revelation 19:14

(KJV) And the armies which were in heaven followed him upon white horses, clothed in fine linen, white and clean.

(그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이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말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원문의 ‘followed him upon white horses’의 번역은 (그예)의 번역에 나타난 것처럼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가 병렬방식으로 묘사된 ‘and’의 용법에 적합하다. 그러나 (말보)가 번역한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로 번역하면 메시지의 정보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번역에서 문법이 번역가에게 어떤 특정 방향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주지시켜주고 있다. 위에 나타난 것처럼 한 언어의 통사 구조는 그 원천언어에서 뿐만 아니라 수용언어로 번역했을 때도 메시지가 구성되는 방식에 특정 제약을 부과하게 된다.

다음은 수동태 문법을 잘 못 해석하여 메시지의 정보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Isaiah 44:21

(KJV) ... O Israel, thou shalt not be forgotten of me.

(그예) ...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말보) ...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잊어서는 안되느니라.

(표준) ...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위에 나타난 ‘thou shalt not be forgotten of me’의 수동형은 (그예)에서 번역한 것처럼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로 해야 수동태 문법이 성립된다. 이 수동문을 (표준)에 나타난 것처럼 능동문으로 전환하면 ‘I shalt not forget thee’(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보)가 번역한 ‘너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는 메시지의 정보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말보)가 번역한 것처럼 번역자가 문법체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면 심각한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음은 전치사 ‘unto’에 관련된 것으로 전치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Joshua 21:45

(KJV) There failed not ought of any good thing which the LORD had spoken unto the house of Israel; all came to pass.

(그예)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말보)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니라.

(KJV)에 나타난 ‘unto’는 고어(old language)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현대어의 ‘to’와 같은 의미다. 전치사 ‘to’의 의미는 X(전치사의 선행사)가 Y(전치사의 목적어)를 향하고 Y가 X의 목표가 될 때 전치사로 쓰인다(이기동 1983: 280). 그러므로 ‘unto the house of Israel’은 (그예)에서 번역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에게’가 옳은 번역이다. (말보)에서 번역한 ‘집에서’는 당연히 잘못된 번역으로 메시지의 정보내용을 잘못 전하고 있다.

다음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38절에 나타난 수사 의문문을 잘못 번역하여 오류를 범하는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Job 38: 38

(KJV) When the dust groweth into hardness, and the clods cleave fast together?

(그예) 흙이 굳어지고 흙덩이들이 서로 단단히 엉길 때에 가만히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말보) 그때 먼지가 굳어지고 흙덩이가 함께 엉켜 있었도다.

(표준)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 붙게 할 수 있느냐?

위에 있는 욥기 38장 38절은 수사 의문문⁵⁾으로 앞 절에 나오는 문맥과 연결해 보면 (표준)이 번역한 것처럼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로 이 수사 의문문의 의미는 앞뒤 문맥으로 보아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5) 수사의문문의 일반적인 특징은 화자의 질문에 대한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수사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청자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의도를 전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Larson 1998: 258-59).

의미로 미루어 볼 때 (말보)의 번역은 그 의미를 완전히 잘 못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문법 배치는 대부분의 문맥에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문법이 번역가에게 어떤 특정 방향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 처럼 번역자에게 있어서 문법능력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박영순(1998: 18)은 문법능력이란 “정확한 발음, 필요한 단어를 선택,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정문과 비문을 구별하고, 정문만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단어와 문장 자체의 의미와 의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자적인 의미와 화용적인 의미의 차이를 알며, 논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경번역자에게 있어 문법능력이 결여 된다면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여 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됨이 분명하다.

2.1.3 연어 충돌의 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연어충돌은 텍스트에 있는 의미요소들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로 문법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어휘적 선택 때문에 초래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어를 살펴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범위 개념을 통해서 가능하다. 비크만과 켈로우(1988: 162-163)에 의하면, “어떤 언어에서 단어와 숙어가 잘 선택되면 그 텍스트에서 좋은 배열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배열을 이루어 잘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연어 범위”라는 것이다. 사실 한 단어가 지니는 연어 범위를 벗어나면 문맥에 어떤 새로운 의미 요소가 들어오게 된다. 물론, 어떤 단어의 경우에는 연어 범위가 여러 세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타동사의 경우, 주어를 선택하고 목적어를 선택하여 배열 될 수 있으며 번역자는 이러한 단어의 범위를 잘 알고 그 범위를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한 단어의 연어 범위를 확장할 때 연어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크만(1988: 163)이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하고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한 외국인이 ‘What delicious singing!’(얼마나 맛있는 노래인가!)라고 말하면 그는 형용사 ‘delicious’(맛있는)란 단어와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할 음식, 음료 등과의 배열 범위를 벗어나 청각적인 경험에 적용시킴으로써 범위를 확장 하여 충돌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한편 위의 영어 ‘What delicious singing!’을 ‘얼마나 감칠맛 나는 노래인가!’

로 번역하면 음식이나 음료에만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의 배합에서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로 이어지는 연어를 살펴보면 영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 다음에 나오는 ‘article,’ ‘thing’을 수식해준 형용사를 살펴보면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올바른 연어와 오류 연어를 볼 수 있다.

| 올바른 연어 | 오류 연어 |
|---------------------|-------------------|
| the real thing | the genuine thing |
| the genuine article | the real article |

예문 :

- 1) She doesn't like recorded music, she prefers the real thing. [i.e. real, live music]
그 여자는 녹음된 음악은 좋아하지 않고 생음악을 선호한다.
- 2) These trainers are the **genuine article**. Those others are just cheap imported copies.
이러한 운동화는 정품이다. 저 다른 것들은 싸구려 모조 수입품들이다.

위의 예문이 보여준 것처럼 일부 형용사는 명사들의 범위를 제한해야 언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비슷한 연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예: a formidable task(만만찮은 일), a formidable opponent(무서운 적수)

한 언어에 맞는 연어의 범위가 다른 언어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단어로 맞기도 하지만 동일한 단어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언어들마다 그 언어 범위가 다를 수도 있다. 다음 킹제임스 번역본의 예를 보면서 언어 범위의 불일치가 텍스트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Luke 15:15

(KJV) And he went and joined himself to a citizen of that country;
(그예) 이에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붙어사니

(말보)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다.

(표준)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위에 나타난 것처럼 a citizen of that country을 (말보)에서 번역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독자들이 수용하는데 어느 정도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예)가 번역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로와 같이 연어 배열의 범위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연어 충돌과 같은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자는 원본에서 단어들의 배열에 주의를 기울여 수용언어로 번역할 때 가능한 축자역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은 연어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를 무시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면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수용 가능한 연어의 범위를 제약하는 의미와 상호 관련 있는 요소를 모르면 연어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Luke 18: 42

(KJV) ... Receive thy sight: thy faith hath saved thee.

(그예) ... 네 시력을 받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보) ... 네 눈으로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표준) ...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위의 (KJV)의 ‘Receive thy sight’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예)에서 한 것처럼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네 시력을 받으라’는 한국어 연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보)나 (표준)에서 번역한 것처럼 문맥의 상황으

로 미루어 보아 ‘네 눈으로 보라’ 내지는 ‘눈을 떠라’와 같은 표현은 언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충돌을 막은 번역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수용언어에서 어색한 원천언어의 언어 유형은 특별히 주의를 하는 것이 번역자로서 바람직하다.

다음 동사+목적어로 이어지는 언어 중에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예문:

- 1) You raise your hand to ask a question. (Not: lift your hand)
질문이 있는 분은 손을 들으세요.
- 2) You can raise a family. (Not: lift a family)
당신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요.

위의 ‘raise your hand’나 ‘raise a family’를 영미문화권에서 ‘lift your hand’ 또는 ‘lift a family’로 사용하지 않듯이 번역할 때 언어 충돌을 막으려면 그 나라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대체해야 된다.

22 언어 충돌을 피하는 방법

언어 충돌은 번역상의 착오(오류)⁶⁾가 아닌 ‘번역투’⁷⁾이기 때문에 번역자가 어떻게 그 언어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비크만과 켈로우(1988: 166)는 언어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수용언어 어휘에 있는 의미론적 요소를 세심하게 연구할 것. 둘째는 명확화 기술(Elicitation techniques)을 이용하여 언어를 확장하고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 사용할 것. 셋째는 수용언어에 문제의 소지

- 6) 『번역산책』(2005: 94)의 저자 이근희는 오류를 이렇게 정리했다: “원천 텍스트를 둘러싼 원천언어(SL) 그 자체에서 비롯되거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언어 외적인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틀린 번역”.
- 7) 계속해서 이근희(2005: 94)는 번역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목표언어(TL)의 어휘적, 통사적, 관용적인 용법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대표적인 사전적 의미로 일대일 대응하는 데서 비롯되는 생소하거나 부적합한 표현”.

가 있을 것 같은 연어는 원문에서도 철저히 주의를 기울일 것.”

한 단어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알고 각 의미를 구체화하는 요소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번역에 착오가 생기게 된다.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철저히 분석하면 세 가지 유형의 착오를 피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유형의 착오란 그릇된 의미 해석, 모호함과 언어충돌이 여기에 속한다.

비크만과 켈로우(1988: 167)의 설명에 의하면 사도행전(Acts) 1장 8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이 세계 전역에 그를 위한 ‘증인’(witnesses)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즈텍(Aztec) 방언 가운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설 경우’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번역자가 이것을 번역할 때 이를 무시하고 번역했다. 그런데 문제는 원어민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 법적인 문맥 그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보통의 의미에서 ‘기소를 위한 증인’이 되었고 예수가 ‘비난받은 사람’이란 뜻을 내포하는 뜻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번역자가 잘 알 지 못하는 요소가 포함되면 그릇된 의미 해석이 나오게 된다.

다음은 단어의 의미 요소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그릇된 의미 해석의 예를 살펴보겠다.

Proverbs 21:31

(KJV) The horse is prepared against the day of battle: but safety is of the LORD.

(그예)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말보)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위에서 (KJV)에 나오는 ‘safety’는 ‘안전’으로 번역해야지 (말보)에서 번역한 것처럼 ‘구원’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번역하게 되면 전체적인 의미에 충돌이 일어난다.

모호성이란 번역자가 단어의 한 가지 의미만을 알고 있는 경우에 자주 발

생한다.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면 그 문맥이 다른 의미를 배제하고 있는지 어떤 지를 잘 모른다. 이와 같이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법의 오용과 함께 모호성도 나타난다.

다음은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여 모호성이 들어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Philippians 2:28

(KJV) I sent him therefore the more carefully, that when ye see him again, ye may rejoice, and that I may be the less sorrowful.

(그예)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말보)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위의 (KJV)의 carefully를 (말보)는 ‘서둘러서’로 번역함으로 의미가 모호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처럼 어휘적인 요소를 잘 모르면 의미 해석이 틀리게 되거나 원치 않는 모호성이 생기게 된다.

어휘적인 요소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 고자 한다.

Philippians 1: 20

(KJV) According to my earnest expectation and my hope, . . .

(그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 .

(말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 .

위의 (KJV)의 expectation을 (말보)에서는 ‘기도’라고 번역해 놓았다. 비크만과

켈로우(1988: 168)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번역자가 어휘를 모르면 번역자의 최종 목표인 관용적이며 의미 있는 번역을 하기란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언어 충돌이 종종 원문에 있는 문장 언어를 문자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역자 자신이 가진 모국어 배경 때문에 원문에 있는 문장 배열이 번역자에게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수용언어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Ephesians 4:18

(KJV) ... because of the blindness of their heart.

(그예) ...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하여

(말보) ...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위 (KJV)의 blindness of their heart를 (그예)에서 번역한 것처럼 ‘마음이 눈먼 것’으로 번역하면 단어의 일차적 의미(primary sense)⁸⁾만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차적 의미는 위의 (말보)에서 번역한 ‘마음의 완고함’처럼 이차적(secondary)⁹⁾이거나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비크만과 켈로우(1988: 173)는 일차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이차적이거나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해야함을 지적하면서 번역자가 익숙해 있는 언어가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8)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모든 단어들은 일차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Beckman 173 참조).

- . The baby was born yesterday. 아이가 어제 태어났다.
- . The baby grew rapidly. 아이가 빠르게 성장했다.
- . He came to see me at my house. 그가 나를 만나러 우리 집에 왔다.

9) 다음과 같은 문장은 이차적이거나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 His love grew cold. 그의 사랑이 식어 갔다.
- . Faith was born. 믿음이 생겨났다.
- . Salvation came to his house. 그의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3. 결론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것은 원문에 나타난 의미를 왜곡하거나, 심한 언어적 충돌 없이 충실하게 그 의미를 번역하는 것이다. 위클리프 성경번역협회(WBT)에 따르면 아직도 3,0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성경을 그들의 모국어로 사용해보지 못하고 있다.¹⁰⁾ 따라서 성경을 모든 민족이 사용하는 그들만의 고유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성경 번역에 있어서 그 번역 모델을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택했으며 번역의 비교를 언어와 문화, 문법 차원의 등가에서 찾아보고 의미 번역의 특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번역할 때 원천언어 뿐만 아니라, 수용언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 차원의 등가를 자연스럽게 번역하려면 수용언어에서 그런 용법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언어 충돌에 따라 제약은 무엇인지, 그 형태가 올바른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문법적 차원 범주와 문화적 차원의 범주가 원천언어와 수용언어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을 때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대체적으로 문화적 차원의 충돌에 있어서는 (그예)나 (말보)의 번역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번역자에게 있어서 거의 강제적일 수밖에 없는 문법적 차원의 충돌에서는 (말보)의 번역에 오류가 발생하여 메시지의 정보 내용이 달라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번역자의 문법능력 부족으로 생긴 것으로 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번역자는 문법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어적 충돌에서는 (그예)의 번역이 언어 배열의 범위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번역한 부분이 많아 모호함과 더불어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의 맥락과 단어들 간의 응집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어 대 단어만 대응시킨 결과이거나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무시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결국 언어 충돌은 번역상의

10) http://www.ethnologue.com/ethno_docs/introduction.asp#intro_vol_2.

착오가 아니기에 번역자가 어떻게 그 언어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하며 번역을 해야 함이 원칙이라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박영순. 1998. 『한국어문법 교육론』. 서울: 박이정
- 이근희. 2005. 『번역산책』. 서울: 한국문화사
- 이기동. 1983. 『영어전치사 연구』. 서울: 교문사
- 함영용. 2003. 「King James Bible(1611) 영어의 고어법 연구(어휘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27, 49-69.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 Baker Mona. 1998. *In Other Wor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rnwell, Katherine. 1980.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 Horsleys Green, England: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Beekman and John Callow. 1988. *Translating the Word of God*. Dallas, TX: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Larson Mildred L. 1998. *Meaning-Based Translation*.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 Nida, Eugen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Netherlands: E.J. Brill.
- Nida, Eugene A. and Charles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Netherlands: E.J. Brill for the United Bible Societies.
- 성경(Bible)
- 『성경전서 :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2001. 그리스도 예수안예.
- 『한글 킹제임스 성경』. 1994. 말씀보존학회.
- 『표준 새번역』. 1993. 대한성서공회.
- 『NIV 한영해설 성경』. 1997. 아가페.
-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in the King James Version(1611)*. 1998.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 Good News Bible: Today's English Version*. 1976. American Bible Society.

[Abstract]

**A Study on Translation Problems of Korean King James Version:
Collocational/Grammatical/Cultural Clashes**

Park NohChul
(Sej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ange and characteristics of "collocational/grammatical/cultural clashes" in the two Korean versions of the *King James Bible* (1611). The study also aims to show how to avoid the collocational /grammatical/cultural clashes and how the collocations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Translating is to reproduce the closest natural equivalence of the source text in the target text, first in terms of meaning and second in terms of style. This study emphasizes dynamic equivalence rather than formal equivalence in translation of collocations. Dynamic equivalence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valent effect in the target language. In other words, dynamic equivalence translation bases on the idea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rget culture readers and the message should be as close as possibl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readers and the message.

The examples of collocational, cultural, and grammatical equivalence are taken from the *King James Bible* (1611), which is the source text of two Korean translations. The collocational clash is not to be confused with a grammatical clash. In a grammatical clash, there is a conflict of meaning components within the text, not between the text and its culture, as can happen in a cultural clash.

Chapter 2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collocational clash' and discusses cultural, grammatical, and collocational clashes in the Korean King James versions. This chapter also suggests some ways how to avoid collocational clashes by studying the meaning components of each word, thereby recognizing potential collocational clashes.

Chapter 3 summarizes the whole study and concludes that Bible translation of collocations cannot be done through a word-for-word translation method, but through a sense-for-sense translation method. Therefore, translators must consider collocations within the target culture. In the end, when the Bible is translated using dynamic equivalence instead of formal equivalence, target text readers surely come to understand the Bible.

▶Key Words: collocation, collocational clash, dynamic equivalence, formal equivalence.

박노철

세종대학교, 시간강사, 번역학 전공

전화: 011-754-4687

pnc1004@hanmail.net

논문투고일: 2005년 10월 28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05년 12월 10일

